

2017 SBS 가요 - 연예 - 연기 3대 축제 개막!

〈가요대전〉
비교 불가한 호화 무대 예약

〈연예대상〉, 〈연기대상〉
인기 작품 풍성해 각축전 예상

한 해를 결산하는 〈SBS 가요대전〉, 〈SBS 연예대상〉, 〈SBS 연기대상〉이 각각 날짜와 장소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모든 지상파 방송사의 가요대전 중 자타공인 최고의 무대를 자랑하는 〈2017 SBS 가요대전〉이 12월 25일(월) 서울 고척 돔에서 유희열, 아이유의 진행으로 오후 5시 50분부터 생방송된다. 〈2017 SBS 가요대전〉은 'Number 1'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SBS 인기가요〉를 빛낸 1위 가수들이 총출동한다. 지난 10일(일) 1차로 공개된 라인업에 워너원, 레드벨벳, 헤이즈, 블랙핑크, 비투비, 여자친구, 선미, 워너, 볼빨간사춘기, 트와이스, 아이유, 방탄소년단, EXO가 이름을 올리자 11일(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 티켓 신청은 오픈과 동시에 5천여 명이 몰려 서버가 다운될 뻔 했다. 이밖에도 블랙핑크, 갯세븐, NCT 127이 〈SBS 인기가요〉 MC 스페셜 스테이지를 꾸미며, 엄정화X선미, 트와이스X레드벨벳이 콜라보 무대를 준비하는 등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호화로운 향연을 준비하고 있다.

〈2017 SBS 연예대상〉은 12월 30일(토)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추자현, 전현무, 이상민의 진행으로 개최된다. 올 한 해 SBS 예능의 활약은 대단했다. 일요일 밤으로 자리를 옮긴 〈미운 우리 새끼〉는 시청률 20%를 넘기며 현존 최고의 예능으로 자리 잡았고, 전열을 재정비한 〈런닝맨〉은 최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이들과 함께 일요일 예능을 책임지고 있는 〈판타스틱 듀오〉 역시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시즌 2를 마무리하고 있다. 신설 프로그램의 활약도 눈부시다. 7월에 방송을 시작한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월요일 밤을 평정했고, 〈백종원의 푸드트럭〉은 요즘 보기 드문 공익 예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금요일 밤을 장악한 〈정글의 법칙〉을 비롯해 전통의 강자인 〈불타는 청춘〉, 〈백년송민 자기야〉는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간판답게 여전히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아쉬움 속에 종영한 〈K팝스타6 더 라스트 찬스〉도 예능의 활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2017 SBS 연기대상〉은 12월 31일(일) 밤 9시 5분부터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신동엽과 이보영의 사회로 진행된다. 2017년 SBS는 월화드라마 〈피고인〉, 〈귓속말〉, 〈조작〉 등 사회성 짙은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호평과 시청률을 동시에 거머쥐었으며, 특별기획 〈우리 갑순이〉, 〈언니는 살아있다〉로 시청률 20%를 넘나들며 안방극장을 점령했다. 참신한 내용으로 2049에 맞춘 드라마스페셜 〈수상한 파트너〉,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판사판〉의 화제성도 빼놓을 수 없다. 아첨연속극 〈아임소리 강남구〉, 〈달콤한 원수〉, 〈해피시스터즈〉 역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로 동시간대 1위를 이어갔다. 〈SBS 연기대상〉의 연출을 맡은 심성민 PD는 “올해 연기대상은 품위 있고 클래식하게 갈 것”이라고 밝히고, “콘셉트는 ‘함께’이다. 국민들이 올 한 해 너무나 드라마틱한 시간을 보냈고, 그때마다 SBS 드라마가 함께 울고 웃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SBS 드라마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함께하면서 서로 격려와 응원을 보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 3부작 파일럿 <연애도시>

<짝>의 명가, SBS 시사교양본부가 만든 새로운 연애 리얼리티 프로



시사교양본부에서 선보이는 3부작 파일럿 <잔혹하고 아름다운 연애도시>(연출: 황성준/이하 <연애도시>)가 12월 14일(목)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연애도시>는 <짝>의 명가 SBS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누리꾼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연애도시>는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처음 만난 남녀가 과거사를 털어놓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될까?’, ‘서로의 과거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고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된다.

무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다. 이별의 아픔을 가진 8명의 남녀가 과거의 도시이자 <연애도시>의 무대 부다페스트에서 처음 만났다.

<연애도시>에는 규칙이 있다. 첫 번째, 그들은 부다페스트에서 일주일 동안 한 집에서 생활하며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두 번째, 매일 아침 그들은 부다페스트를 함께 여행할 이성을 선택해 집을 나선다. 누군가는 여러 명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무런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혼자 부다페스트를 여행한다.

마지막, 매일 해가 지는 황혼의 시간에 그들은 자신의 지난 사랑에 대해 숨김없이 고백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왔고, 어떤 연애를 했는지, 그리고 그 연애의 끝은 어땠는지 데이트를 하는 상대에게 고백한다.

과거의 고백은 서로에 대해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깊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사랑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과 상대의 과거 사랑의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고 나면, 출연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서로의 과거를 알게 된 그들은 연애도시 부다페스트에서 새롭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연애의 도시 부다페스트에서 몇 쌍의 연인이 탄생할지 궁금증을 주는 가운데, <연애도시>는 12월 14일(목), 21일(목), 27일(수)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볼거리가 더욱 풍부해진 <애니메이션 런닝맨 파트 2> 12월 23일(토) 첫 방송



<애니메이션 런닝맨 파트 2>가 12월 23일(토) 오전 10시 25분 첫 방송된다.

<애니메이션 런닝맨>은 런닝맨 챔피언십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의 모험을 그린 판타지 액션물로, 파트 2에서는 런닝맨과 최강의 상대 DV7의 치열한 경쟁구도, 차밍골드의 또 다른 음모가 그려진다.

<애니메이션 런닝맨>은 지난 7월 23일 첫 방송된 후 지상파 애니메이션 평균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SBS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이며, 특히 KBS kids, 재능TV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재능TV에서는 크리스마스 특별편성으로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매일 3시간씩 확대 방송한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본편이 모두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에 랭크되며 단기간에 1000만 뷰를 돌파했다. 공동사업자이자 글로벌 캐릭터 비즈니스 회사인 라인프렌즈는 <애니메이션 런닝맨>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외 유명 배급업체 및 방송사와 관련 수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글로벌 채널 카툰네트워크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방영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봄부터 방영에 들어간다. 또 의류, 봉제, 문구, 서적 등 약 50개 품목을 아우르는 <애니메이션 런닝맨> 상품을 출시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편, 파트 2 방송에 앞서 지난 11월 11일(토)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열린 시사사회는 7월 말 첫 방송 시사회 때보다 3배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으며, 참석자들이 주제곡을 따라 부르고, 로비에 마련된 상품 전시대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등 <애니메이션 런닝맨>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콘텐츠파트너십팀 관계자는 “파트 2 방송과 더불어 더 다양한 상품과 게임출시로 <애니메이션 런닝맨>의 인기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BS 스페셜> ‘The 람쥐’ 호평 BBC 부럽지 않은 영상미+드라마 같은 스토리

12월 10일(일) 방송된 <SBS스페셜> ‘The 람쥐’ (연출: 주시평)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The 람쥐’는 국내 최초로 다람쥐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로, 거대한 숲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상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입혀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싸움도 못하고 약하고 여린 다람쥐 ‘람쥐’가 천적의 위협이나 동료 다람쥐와의 먹이 싸움에서 밀리다 점차 강한 다람쥐로 성장하고, 어느 순간 새로운 도전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길을 떠난다는 설정은 시청자의 몰입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동물 다큐를 기승전결을 갖춘 하나의 드라마로 완성시켰다. 또 거의 모든 촬영을 180프레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여 BBC 못잖은 영상미를 추구했다. 일반 카메라 속도의 6배에 달하는 고속촬영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눈으로 보기 힘든 다람쥐의 빠른 움직임 등을 세밀하게 묘사해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배경음악도 한몫했다. 전개에 따라 영화 ‘007’ 시리즈의 사운드 트랙,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등 귀에 익은 곡들은 극적 효과와 재미를 더했다.

시청자들은 “수입 다큐인 줄”, “새로운 형식의 동물 다큐 출현”, “람쥐 너무 귀여워 심장 멎을 뻔”, “재미와 감동, 의미를 모두 담아냈다”, “몰입도 최고!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한 편 본 듯한 느낌”이라고 평가했으며 “다른 동물을 소재로 계속 시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방송사 최초 뉴스 부문 뉴미디어 스타트업 **SBS** 디지털뉴스랩 출범



‘스브스뉴스’와 ‘비디오매그’ 등으로 뉴미디어 뉴스 시장을 선도해온 SBS가 뉴스 부문 뉴미디어 자회사 ‘SBS디지털뉴스랩’(대표 이주상)을 출범시킨다. 방송사가 뉴스 부문 뉴미디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급

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제작기반을 마련해 뉴미디어에 최적화된 고품질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SBS디지털뉴스랩은 SBS 뉴스의 모바일 앱과 PC 웹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이미 브랜드화된 소셜 동영상뉴스 ‘비디오매그’와 소셜 미디어에 최적화된 ‘스브스뉴스’,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 ‘마부작침’, 팟 캐스트 ‘골룸’ 등의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주상 대표는 “SBS디지털뉴스랩 출범으로 독자적인 뉴미디어 뉴스 개발 인력과 기획, 제작 인력 등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말했다.

SBS디지털뉴스랩은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독립법인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나갈 계획이다. SBS의 100% 자회사로 출범하는 SBS디지털뉴스랩은 12월 14일(목) 법인 설립을 한 뒤 내년 1월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시사교양의 간판 <그것이 알고 싶다> 각종 시상식 점령



한해를 결산하는 시상식이 많은 연말연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각종 시상식을 휩쓸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11월 30일(목) ‘주지 스님의 이중생활’(연출: 도준우)편이 한국불교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1회 만해언론상 일반보도 부문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상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주지 스님의 이중생활’은 한 스님의 성폭행 의혹부터 시작해 1994년 진통 끝에 개혁을 선언한 조계종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 인사비리와 비리 무마 약속을 조망하며 한국 불교의 개혁을 촉구하여 반향을 일으켰다. <그것이 알고 싶다> ‘몸통은 응답하라-방송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태’(연출: 이근별, 촬영: 유진훈, 작가: 이승미)는 12월 7일(목) 한국PD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TV 시사·교양 부문 수상작 ‘몸통은 응답하라’는 ‘국정농단 사태 1주년’을 맞아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권력의 방송 장악 과정을 파헤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언론 스스로에 대한 비판과 방송 정상화에 대한 언론

인의 열망을 담아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40억은 누구의 돈인가-BBK 투자금 진실게임’(연출: 장경주)은 12월 7일(목)에 열린 제9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정의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BBK 투자금 진실게임’은 김경준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 진실게임의 열쇠인 다스(DAS)의 실체를 추적한 프로그램으로, 아직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날카롭게 카메라를 들이대 탐사보도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의 시크릿’ 홍정아 작가는 12월 12일(화)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7 한국방송작가상 시상식에서 교양 부문 작가상을 받아 <그것이 알고 싶다>팀에 기쁨을 더했다. 협회 측은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과 진실을 파헤친 작가의 통찰력과 필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SBS 라디오, 사상 최고 매출로 전체 라디오 방송사 중 광고 매출 1위 달성

지난 11월, 2017년 4라운드 청취율 조사에서 파워FM이 11라운드 연속 ‘채널 청취율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올해 SBS 라디오가 전체 라디오 방송사 중 광고 매출 1위에 오르는 겹경사를 맞았다.

2017년 SBS 라디오 광고 매출은 총 393억(FM 292억, AM 101억)으로, 전체 라디오 방송사 중 광고 매출 1위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작년까지 1위를 유지해 오던 MBC 라디오(서울 기준)보다 50억 이상 앞설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며, SBS가 지금까지 보유한 자체 최고 매출 기록(2015년 368억)보다 25억 늘어난 금액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장세의 중심에는 10년째 청취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두시탈출 컬투쇼>가 있다. 모든 청취층을 아우르는 <두시탈출 컬투쇼>는 고가의 패키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SBS 라디오 광고 매출의 일등 공신이다.

2017년 4라운드 청취율 조사에서 전체 3위로 올라선 <김영철의 파워FM> 역시 광고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라디오 광고 판매의 가장 핵심 시간대인 출근 시간대의 경쟁력을 높여 매출 견인 효과를 가져왔다.

라디오센터 관계자는 “광고 매출 1위는 끊임없이 청취자와 소통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라디오센터 내 모든 PD, 작가, 진행자 및 구성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다.

SBS, 제22회 소비자의 날 시상식 휩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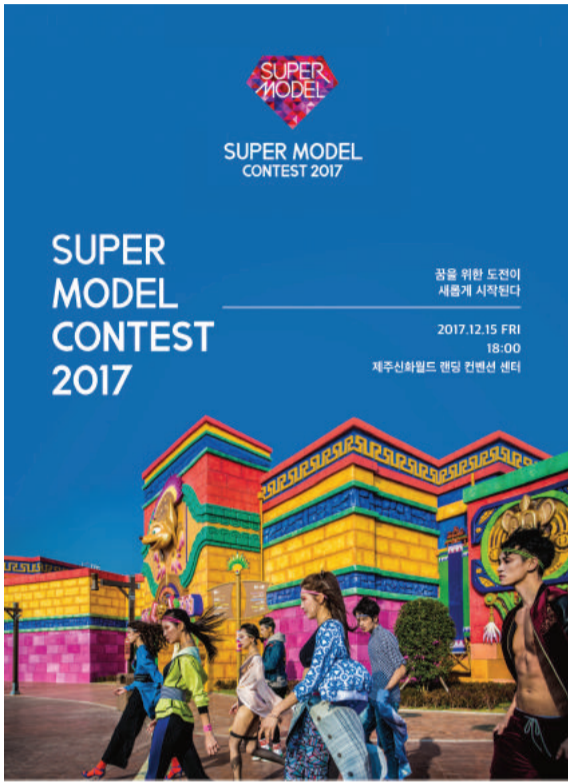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KCA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17 제22회 소비자의 날 시상식에서 SBS의 프로그램들이 올해 처음 신설된 TV 제작 부문 작품상을 휩쓸었다. SBS는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연출: 서혜진, 김동욱), <미운 우리 새끼>(연출: 광승영, 최소형, 박종원, 김민), <TV 동물농장>(프로듀서: 이덕건, 연출: 이경홍)이 상을 받아, 5개의 작품상 중 세 개를 차지했다. 또 <너는 내 운명>의 추자현·우효광이 ‘올해의 베스트 커플’ 및 ‘아름다운 커플’ 2개 부문을 수상했으며, 장신영·강경준은 ‘올해의 커플’ 상을 수상했다. TV 제작 부문 작품상은 작품의 건전성, 시청자 유익성, 시청자 수, 국민 정서 등을 온라인 조사와 투표,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해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4일(월) 서울 시청 태평홀에서 열렸다.



SBS 플러스

최고의 스타 등용문 '2017 슈퍼모델 선발대회' 제주도에서 개최



'2017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12월 15(금) 제주신화월드 랜딩 컨벤션센터에서 신동엽과 장예원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26년째를 맞은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이너 등용문으로서, 이소라, 박돌선, 최여진, 한예슬, 한지혜, 수현, 나나, 이성경 등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해왔다. 올해는 역대 최대 지원자가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27인의 예비 슈퍼모델들이 본선에 오른다. 특히 이번 대회는 최초로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관심을 더하고 있다. 5번째로 진행을 맡아 역대 최대 진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신동엽은 슈퍼모델 선발대회 맞춤 MC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올해도 맹활약할 예정이다. 미모와 재치를 겸비한 장예원 아나운서는 신동엽과 <TV 동물농장>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어 이들의 찰떡 케미가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어떻게 녹아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26회 '2017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12월 15일(금) 오후 6시에 SBS에서 생방송되며, 당일 밤 12시 SBS Plus, SBS funE, 16일 저녁 7시 SBS MTV에서도 방송된다.

SBS 골프

2017 '드림워드버디' 기금 전달식

'SBS와 KLPGA가 함께하는 드림워드버디'의 기금 전달식이 11월 27일(월) 2017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열렸다. '드림워드 버디'는 골프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SBS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지난 2015년부터 KLPGA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자선 활동을 펼쳤고, 올해는 33명의 선수들이 매 대회, 각 라운드에서 기록한 버디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 SBS와 KLPGA는 각 라운드 두 번째 파3 홀에서 버디 1개당 10만 원의 기부금을 더했다. 올해는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기금이 모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청송군 안덕면 공립지역아동센터 건립에 쓰인다.



BJC 올해의 방송기자상 SBS 잔치-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 / 구멍 뚫린 교정 관리 / 친일파 재산 보고서



SBS가 방송기자클럽(BJC)이 주는 올해의 방송기자상을 휩쓸었다. SBS는 뉴스 부문 본상과 기획보도 부문 본상,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거머쥐며 지역 부문을 제외한 BJC 올해의 방송기자상의 모든 부문에서 수상작을 냈다. 특별취재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박민하, 최우철, 박수진)이 뉴스 부문 본상을 받았으며, 기획취재부의 '구멍 뚫린 교도소의 교정관리'(김종원, 장훈경, 정성진)는 기획보도 부문 본상을 받았다. 또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과 소셜미디어 동영상 비디오편집가 협업한 '단독공개, 친일파 재산 보고서'는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12월 11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편, '단독공개, 친일파 재산 보고서'는 11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한국온라인저널리즘어워드에서 기획취재보도 부문 상을 받기도 했다.

<영재발굴단>, <SBS스페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SBS스페셜> '나의 빛나는 흑역사', '서번트 성호를 부탁해', <영재발굴단 in 유럽> '부산남매 유럽 가다'가 각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2017년 4월, 8월, 9월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SBS스페셜> '나의 빛나는 흑역사' (연출: 정준기)는 '실패'를 재조명한 프로그램으로, 실패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를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SBS스페셜> '서번트 성호를 부탁해' (연출: 정관조/외주)는 장애인 자녀를 둔 한 가족의 갈등을 무려 9년에 걸쳐 기록,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성찰하고 사회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게 했다. <영재발굴단 in 유럽> '부산남매 유럽 가다' (연출: 한재신)는 영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기획이 돋보였으며, 거장과의 만남을 통해 영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감동과 재미를 주었다.

한편, 방통심의위원장 공적으로 8개월간 중단됐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시상식이 연말에 지각 전달식을 열었다.

SBS A&T 2018년 1월,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임꺽정>(철원), <토지>(하동), <연개소문>(문경) 오픈세트 등 현장에서 뛰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세월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다 잊으시고, 좋았던 일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SBS A&T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남엔 헤어짐이 있듯이 제게도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많은 변화 속에 도약을 거듭하여 큰 성장을 이뤘고,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며 더 아름답고, 진실된 영상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하며 도움을 주신 동료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방송 하나만을 위해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SBS A&T 정민균·송요훈,

김홍재·최제락 그리메상

월화드라마 <피고인>의 정민균·송요훈 촬영감독이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가 주관하는 '2017 그리메상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월화드라마 <사랑의 온도>의 김홍재·최제락 촬영감독은 드라마 부문 우수상을 받아, 드라마 부문 그리메상을 SBS가 독차지했다. 시상식은 12월 8일(목) KBS 신관 홀에서 개최됐다. 그리메상은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에서 1993년 제정한 상으로 지난 1년 동안 각 방송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및 드라마 부문에서 뛰어난 영상미와 실험적인 영상을 추구한 촬영감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